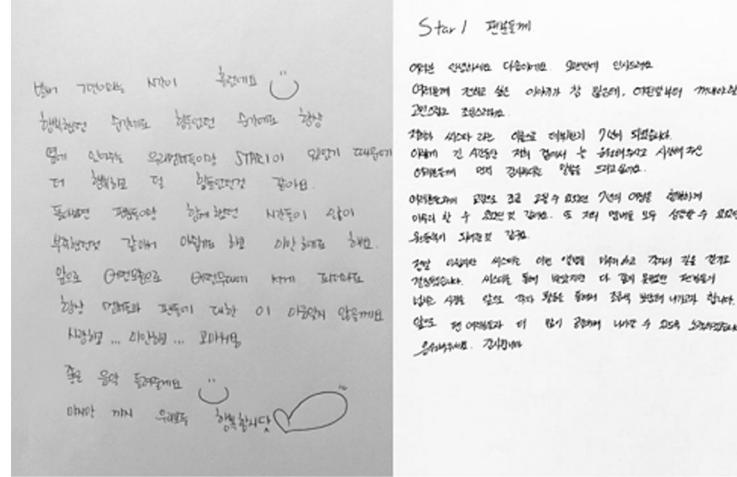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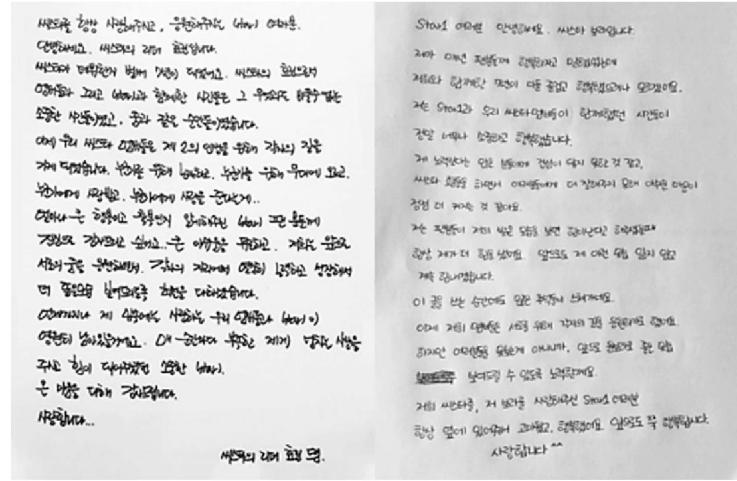


# “제2의 인생 위해 각자 길 떠나요”

씨스타 ‘해체’ 31일 싱글 발표 후 7년 그룹 활동 종료



23일 팬카페에 직접 쓴 손편지로 해체 사실을 알린 씨스타

“소중하고 꿈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제2의 인생을 가기 위해 각자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4인조 걸그룹 씨스타(효린, 보라, 소유, 다솜)가 31일 발표하는 싱글을 끝으로 7년 만에 해체한다.

23일 가요계에 따르면 6월 초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이 만료되는 씨스타는 블랙아이드필승이 작곡한 이번 싱글을 끝으로 팀 활동을 마무리한다.

한 가요 관계자는 “멤버들이 소속사와 오랜 시간 진로를 상의했다고 들었다”며 “7년간 고생하며 활동한 멤버들이 다른 도전을 해보겠다는 의견을 존중해주기로 한 것 같다”고 귀띔했다.

그러나 소속사와 멤버들이 팀 활동을 마치는 뜻을 모았지만 계약과 관련한 논의는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효린과 소유는 솔로 가수로 활동 할 것으로 보이며 예능에서 활약한 보라와 SBS TV ‘안니는 살아있다’에 출연 중인 다솜은 연기자로 전향할 가능성이 높다.

씨스타의 팀 활동 종료는 다소 의외다.

소속사와 그룹의 팀워크가 좋았으며 멤버들은 최근 마카오로 뮤직비디오 촬영을 떠나는 날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라이브를 통해 밝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특히 세 앨범을 낼 때마다 음원차트 1위

를 찍는 등 좋은 성적을 내 팀 자체가 하락세를 걱정하고 있다.

그로인해 가요계와 팬들의 놀라움과 아쉬움이 절정으로 보인다.

멤버들은 팬카페에 손편지를 올려 팀 활동 종료를 알리고 팬들에게 미안함을 전했다.

효린은 “씨스타의 효린으로서 멤버들과 그리고 스타1(팬클럽명)과 함께 한 시간은 그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고 꿈과 같은 순간들이었습니다”라

며 “이제 우리 씨스타 멤버들은 제2의 인생을 위해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보라도 “제가 매년 팬들께 행복하고 했는데 저희와 함께 한 7년이 다들 즐겁고 행복했으려나 모르겠어요”라며 “제는 스타1과 씨스타 멤버들이 함께했던 시간이 정말 너무나 소중하고 행복했습니다. 제 노력보다는 많은 분에게 진심이 담지 못한 것 같고 씨스타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더 접해주시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라고 적었다.

또 소유는 “행복했던 순간에도 힘들었던 순간에도 항상 옆에 있어주는 우리 멤버들이랑 스타1이 있었기 때문에 더 행복하고 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팬분들이랑 함께 했던 시간들이 많이 부족해



된 것 같아서 아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요”라고 썼다.

다솜도 “여러분들의 교감으로 조금 고칠 수 있었던 7년의 여정을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라며 “정말 아쉽지만 씨스타는 이번 앨범을 마무리하고 각자의 길을 걷기로 결정했습니다. 팬분들의 넘치는 사랑을 앞으로 각자 활동을 통해서 조금씩 보답해 나가고자 합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씨스타는 2010년 6월 3일 ‘푸시 푸시’(Push Push)로 데뷔해 에너지 넘치는 /연합뉴스

댄스곡과 건강한 섹시미, 화려한 퍼포먼스로 사랑받으며 ‘음원파워’를 보여줬다.

특히 ‘소 쿨’(So Cool)과 ‘러빙 유’(Loving U), ‘기브 잇 투 미’(Give it to me), ‘더치 마이 바디’, ‘셰이크 잇’(Shake It), ‘아이 라이크 댓’ 등 시원한 여름 곡을 엿觎아 히트시켜 ‘서머 퀸’으로 불렸다.

효린과 보라로 구성된 씨스타의 유닛(소그룹)인 ‘씨스타 19’도 ‘마 보이’(Ma boy)와 ‘있다 없으니까’로 큰 사랑을 받았다.

/연합뉴스

## 백아연, 세 번째 미니 앨범 발표

다양한 감정선 담은 ‘비터스위트’ 티저 공개

가수 백아연이 29일 세 번째 미니앨범 ‘비터스위트’(Bittersweet)를 발표한다고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가 23일 밝혔다.

‘비터스위트’는 2013년 발표한 두 번째 미니 앨범 ‘어 그 걸’(A Good Girl) 이후 4년 만의 미니앨범이다.

타이틀곡은 ‘달콤한 빙발’로 의미 없는 헛된 말이란 걸 알면서도 달콤함을 느끼는 미묘한 감정을 표현했다. ‘백아연 표’ 봄

발라드인 이 곡에는 해외에서 호평받고 있는 3인조 여성 보컬그룹 바비렉스가 피처링으로 참여했다.

소속사는 “씁쓸하면서도 달콤하다는 의미의 제목처럼 앨범에는 백아연의 감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감정선을 담았다”고 말했다.

소속사는 이날 홈페이지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컴백 티저 이미지 8종



을 공개했다. 사진에서 백아연은 동화 속 주인공을 떠올리게 하는 의상과 분홍빛 메이크업으로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보여줬다.

## ‘돌아온’ 잭 스패로

캐리비안의 해적 5번째 시리즈…오늘 개봉

검게 침울한 눈, 팔아 내린 수염, 늘 반쯤 취한 듯한 걸음걸이와 말투, 느슨한 속에 배이 나오는 섹시함…

사실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 시리즈는 해적 캡틴 잭 스패로를 연기하는 조니 텝의 존재감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먹고 들어가는 영화다.

덕분에 이 시리즈는 국내에서만 누적 관객수 1,470만명 이상을 동원하며 죄고의 액션 어드벤처 영화로 자리매김했다. 시리즈가 공개될 때마다 나를 안에 100만명을 돌파하는 조고속 관객몰이로도 유명하다.

‘캐리비안의 해적-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시리즈의 다섯 번째 편, 이번에도 역시 조니 텝의 매력에 많은 부분을 의지한다.

그가 연기하는 잭 스패로는 특유의 기지와 재치를 발휘하며 바닷속 위기를 헤쳐나간다.

이번 편은 잭에 의해 모든 것을 잊고 군함 ‘시밀런트 메리’와 함께 죽은 자들의 영역에 가라앉았던 바다 학살자 살라자르(하

비에르 바르뎀)가 복수를 위해 찾아오면서 본격적인 이야기 궤도에 오른다.

잭은 자신과 동료들의 죽음에 맞서 살아남기 위한 사투를 시작한다.

여기에 아버지 월 터너(올랜도 블룸)를 찾기 위해 해적에 합류한 해군 선원 헨리 터너(브렌트 스웨이츠), 마녀로 오해받아 여러 차례 위에 빠지는 천문학자 카리나 스미스(카야 소코델라리오)도 잭을 돋는 주요 인물로 등장한다.

일단 풍성한 볼거리와 강력해진 스페셜 클립은 이 영화에 대한 관객들의 기대치를 제대로 충족시킨다.

유령 군함 ‘시밀런트 메리’가 바다 밑에 서 솟구쳐 올라와 다른 해적선을 쳐어 누르는 장면, 그들과 함께 나타난 유령 상어 떼, 소용돌이치는 바다 한가운데 펼쳐지는 긴박한 해양 전투장면 등이 압도적이다.

특히 유물을 찾아 도착한 해저 장면은 실제 바닷속에 들어온 것 같은 영화적 폐감을 안겨준다.

불그스름한 별빛이 가득한 섬, 물로 갈



라진 잠깐한 바다, 그사이에 놀이 전설의 유물을 두고 펼쳐지는 결투 등은 아름다우면서도 한시도 눈을 뗄 수 없게 하는 긴장감이 느껴진다.

다면 캐릭터마다 개연성을 부여하고자 다양한 이야기가 두루盛开해 놓아지다 보니 다소 이야기가 빠빠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

영화 장르 특성상 좀처럼 스토리에 대한 강박은 좀 더 떨어났어도 좋을 것 같다.

시리즈 팬들을 위한 ‘퍼즐 조각’들이 곳곳에 배치된 점도 관객들의 즐거움을 배가 시킬 것으로 보인다.

5월 24일(음 4월 29일)

김도완 선생 제공 02-766-1818 www.esazu.com

### 오늘의 운세



48년생 봄은 고달프겠지만 보람은 있겠다. 60년생 면제 나서면 손해를 보겠다. 72년생 좋은 짓이 좋은 짓이다. 84년생 확신이 서지 않으면 시작을 말라.



49년생 막힌 길은 돌아가고 힘들면 쉬어 가라. 61년생 남도 보고 봄도 판다. 73년생 물고기는 물의 고마움을 모른다. 85년생 음지가 양지되는 날이다.



50년생 기대도 못한 월직을 낚는다. 62년생 능력을 발휘하고 신망을 얻는다. 74년생 말한 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 86년생 싱글은 좋은 인연을 만난다.



51년생 지금 날 걱정할 때가 아니다. 63년생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75년생 혼상유지만 하면 성공이다. 87년생 듣기 좋은 말한마디가 큰 힘이 된다.



52년생 호의를 베풀고도 월망을 들을 수 있다. 64년생 유혹가에는 일신도 말라. 76년생 명성을 전하에 크게 떨친다. 88년생 잘 난 적하면 미움을 받는다.



41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53년생 부질없는 일에 매달리지 말라. 65년생 술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77년생 사고수가 있으니 운전 조심하라.



42년생 지금은 자손심을 내세울 때가 아니다. 54년생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66년생 벌을 것은 받고 줄 것은 줘라. 78년생 뜻밖의 소득이 있겠다.



43년생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55년생 모든 일이 순탄하게 진행된다. 67년생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79년생 귀인의 도움을 받아서 위기를 모면한다.



44년생 눈 뜨고 도둑맞는다. 56년생 실력도 실력이지 만 운이 따라야 한다. 68년생 산 너머 산이다. 80년생 큰일을 할 때는 반드시 사람을 근본으로 한다.



45년생 봄 심은 데 콩 나고, 팔 심은 데 팥 낸다. 57년생 생 친척보다 이웃사촌이 낫다. 69년생 기다리던 소식을 들는다. 81년생 하는 일마다 잘 된다.



46년생 수고는 많지만 실속이 적다. 58년생 명분 없는 쌈은 아예 시작을 말라. 70년생 가는 곳마다 좋은 일이 생긴다. 82년생 역시 구관이 명관이다.



47년생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59년생 눈치 없이 나서면 미움을 받는다. 71년생 조금만 더 기다려라. 83년생 마무리가 가장 좋하다.

KBS 1	KBS 2	MBC	KBS-SBS	EBS
⑥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00 모닝 와이드	00 한국기행(제2) 20 세계테마기행(제2)
⑦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 뉴스투데이	30 KBS 모닝 730	30 뾰롱뽀롱 뽀로로 45 출동! 슈퍼원스(제2)
⑧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아침 쏘리 강남구	00 당동탱 유치원 30 뚝딱맨 45 죄고다! 호기심짜기
⑨ 30 KBS 뉴스	00 그 여자의 바다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55 이나연 종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10 좋은 아침	00 주사위 요정 큐비쥬 15 임파 깨트리(제2)
⑩ 00 이나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40 지구촌 뉴스		00 이나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30 한국기행(제2) 50 죄고의 요리비결 20 세계테마기행(제2)
⑪ 00 KBS 뉴스12	00 속보이는 TV 55 감성툰 고맙습니다(제2)	00 MBC 정오뉴스 20 군주(제2)	00 SBS 12뉴스 55 테마스페셜	00 EBS 정오 뉴스 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⑫ 00 우리사는 세상(제2) 55 대선후보자 인사청문회	00 촬발! 비디오 여행(제2)	30 촬발! 비디오 여행(제2)	55 닥터 365	40 EBS 특별기획 통찰